



소개

## 리베르소 트리뷰트 에나멜 ‘샤나메’

리베르소 트리뷰트 에나멜 시리즈를 더욱 풍성하게 해주는  
정교한 수작업으로 장식된 4 가지 새로운 타임피스

발레드주에 위치한 매뉴팩처의

메티에 라르™ 아틀리에에서 제작

### 주요 특징:

- 페르시아 미니어처 페인팅: 각 케이스백 제작에 100 시간 소요
- 메티에 라르™ 노하우: 4 가지 정교한 공예술 - 에나멜 미니어처 페인팅, 그랑 퓨 에나멜링, 파요네, 기요셰
- 리미티드 에디션: 각 10 피스

예거 르쿨트르는 4 가지 새로운 리베르소 트리뷰트 에나멜 타임피스 시리즈를 선보입니다. 폴로 스포츠에서 탄생한 리베르소의 기원에 찬사를 보내며, 말의 힘과 아름다움을 포착한 이번 시리즈는 세계적으로 위대한 문학 예술 작품 중 하나인 페르시아 서사시 《왕서(王書, 페르시아어로 샤나메)》에 경의를 표합니다. 페르시아에서 시작된 미니어처 페인팅의 역사를 기리는 의미에서, 각 모델의 케이스백에는 16 세기에 샤 타흐마스프(Shah Tahmasp)를 위해 제작된 장엄한 샤나메의 삽화를 재현한 미니어처가 담겨 있습니다. 리베르소가 폴로 경기에서 탄생한 것처럼 이 타임피스들은 이야기 속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제작에 영감을 준 경기의 본질을 담아냈을 뿐만 아니라, 미니어처 에나멜 페인팅의 예술성을 통해 고대 페르시아에서 시작된 폴로의 기원에 경의를 표합니다. 새로운 모델들은 미니어처 에나멜 페인팅, 파요네, 그랑 퓨 에나멜링, 기요셰의 4 가지 전통 공예술을 결합하여, 발레드주에 자리한 그랑 메종의 메티에 라르™ 아틀리에에 모인 숙련된 장인들의 다양한 기술과 재능을 다시 한번 입증합니다.



## 폴로 스포츠를 통해 말에 경의를 표하는 모델

---

1931 년에 출시된 리베르소는 당시 유행을 선도했던 ‘스포츠를 즐기는 신사(sporting gentleman)’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디자인되었습니다. 1858-1947 년 당시 영국령 인도에 주둔하던 장교들은 격렬한 폴로 경기를 하는 동안에도 파손되지 않는 견딜 수 있는 견고한 시계를 제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해결책으로 형태와 기능을 완벽하게 통합한 리베르소가 탄생했습니다. 각계각층의 트렌드세터들로부터 즉각적인 호응을 얻었던 리베르소는 곧 남성과 여성을 위한 새로운 버전이 등장하면서 본래의 스포츠용 목적을 뛰어넘게 되었습니다. 리베르소의 아이코닉한 양면 케이스(특히 CH159982)와 독특한 아르데코 라인은 현재까지 변함없이 유지하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위치가 되었습니다.

한편, 폴로의 기원은 영국령 인도를 넘어 사나메에서 기리는 고대 페르시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신성하게 여겨지는 말은 페르시아 문화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으며, 전투, 사냥, 스포츠와 같은 활동의 중심이었습니다. 말과 기수의 조화를 보여주는 폴로 경기는 2,000 여 년 전 페르시아에서 처음 기록되었습니다. 이 스포츠가 인도로 전파되면서 귀족들은 열광하며 직접 경기에 참여했으며, 이는 사교계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시저 드 트레(César de Trey)는 고귀한 고대 스포츠의 유산을 섬세하게 담아낸 리베르소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 페르시아 문화와 에나멜 미니어처 페인팅

---

리베르소의 디자인에는 폴로 경기장에서의 실용적인 기능을 넘어, 예상치 못한 특별한 장점이 있었습니다. 메탈 소재로 된 다이얼 뒷면은 초기에 래커와 인그레이빙으로 맞춤 제작할 수 있는 이상적인 캔버스가 되어 주었습니다. 폴로 경기를 위해 리베르소를 의뢰한 인도 주둔 장교들은 인도 왕실을 방문하는 동안 종종 자신들의 문장이나 이니셜로 시계를 장식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동양 미니어처 페인팅의 전통에 깊이 뿌리를 둔 예술 형태인 인도 미니어처를 시계 뒷면에 재현해 줄 것을 매뉴팩처에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도전을 받아들인 예거 르쿨트르는 전통적인 에나멜 기법을 개선하여 리베르소의 비율에 맞게 적용함으로써, 역사상 가장 정교하면서도 영감을 선사하는 시계를 탄생시켰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리베르소와 여정을 함께한 에나멜링은 다양한 문화와 주제를 기리기 위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으며, 이러한 예술 형식은 그랑 메종의 창의적 표현의 핵심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예거 르쿨트르 박물관은 1936 년과 1949 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탁월한 장인 정신을 보여주는 두 점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도 공주를 묘사한 리베르소 ‘인도의 뷰티(Indian Beauty)’와 힌두교 신 라마를 표현한 리베르소 ‘라마(Rama)’입니다. 이 걸작들은 오늘날 리베르소 트리뷰트 에나멜 ‘샤나메’로 이어지는 풍부한 예술적 유산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리베르소가 폴로에서 탄생한 것처럼, 이 최신 타임피스는 페르시아 스포츠의 기원과 미니어처 에나멜 페인팅의 영원한 예술성을 기리는 동시에 메종이 페르시아 문화, 특히 샤나메를 발견하도록 이끈 이야기를 완벽하게 되살려냈습니다.

신제품 시리즈는 페르시아에서 시작된 스포츠의 기원을 비롯하여, 미니어처 에나멜 페인팅의 변치 않는 예술성에 찬사를 보냅니다. 《왕서(王書, 페르시아어로 샤나메)》로도 알려진 페르시아 서사시는 시인 피르다우시(Ferdowsi)가 977 년부터 1010 년까지 20 년 이상에 걸쳐 완성했습니다. 50,000 개의 운을 맞춘 2 행 연구로 구성된 작품으로, 페르시아 통치자들의 신화부터 642 년 아랍인들에게 정복되기까지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샤나메의 훌륭한 판본 중 하나는 샤 타흐마스프에게 헌정된 것으로 258 개의 삽화가 실려 있으며, 각 삽화는 페르시아 미니어처 페인팅의 걸작으로 여겨집니다. 두 세대에 걸쳐 페르시아의 위대한 예술가들이 제작한 이 판본은 1568 년 오스만 제국의 술탄 셀림 2 세(Selim II)에게 선물로 전달되어 수 세기 동안 오스만 제국의 본궁인 톱카프 궁전(Topkapi Palace)에 보관되었습니다. 1970 년대에 제본된 원고는 파쇄되었으며 2 절판으로 된 책은 현재 전 세계 박물관과 개인 소장품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 **페르시아 미니어처 페인팅과 메티에 라르™ 아틀리에를 기리는 정교한 장인 정신**

---

페르시아 미니어처 페인팅이라는 용어는 특히 불투명한 수채화 물감, 잉크, 은 및 다양한 형태의 금을 사용하여 종이에 그린 그림을 의미합니다. 이름과 달리 크기는 소형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책 크기’로 채색 필사본과 함께 제본됩니다. 미니어처 페인팅은 13 세기부터 페르시아에서 번성하였고, 샤 타흐마스프 샤마네(Shah Tahmasp Shahmaneh)가 탄생한 16 세기에 절정에 이르렀으며, 인도 무굴 제국에도 전파되었습니다. 세밀하고 정교한 미니어처 예술 작품의 풍부한 전통이 리베르소 시계 뒷면에 에나멜 처리를 의뢰한 이유이며, 이러한 걸작을 보존하고 전시하는 동시에 미니어처 페인팅 예술을 웨어러블 형태로 수용하는 독특한 방법을 선보입니다. 페르시아 미니어처는 밝고 순수한 색상을



사용하여 평면 위에 여러 층으로 표현한 스타일이 특징이며, 피사체의 의상과 풍경 또는 건축물의 디테일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메종의 예술과 문화에 대한 비전을 표현하는 리베르소 트리뷰트 에나멜 ‘샤나메’ 시리즈는 에나멜 미니어처 페인팅과 그랑 퓨 에나멜링, 파요네, 기요세의 4 가지 뛰어난 기술을 통해 페르시아 미니어처 페인팅을 새롭게 재해석함으로써, 매뉴팩처 메티에 라르 ™ 아틀리에에서 양성된 재능과 기술을 훌륭하게 선보입니다.

케이스백을 장식하는 데 있어 첫 번째 과제는 정교하나 선으로 그린 작은 디테일로 가득한 48x32cm 크기의 원본 작품을 소형화하여 2cm<sup>2</sup>의 표면에 재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신화 속 세계의 몽환적인 느낌과 극적인 이야기를 비롯하여 수십 가지의 풍부한 컬러를 구현해야 했습니다.

에나멜 페인팅은 섬세한 금박(24K, 999/1000) 조각을 원하는 모티프의 형태와 크기에 맞게 조심스럽게 절단하는 파요네 기법으로 더욱 고급스러운 매력을 자아냅니다. 이는 오리지널 페르시아 미니어처에 금박을 사용하여 풍부하고 화려한 금빛을 내는 전통 기법에 대한 오마주입니다. 그런 다음 조각들을 에나멜 처리할 표면에 수작업으로 꼼꼼하게 배치합니다. 이는 고도로 숙련된 작업으로, 케이스백 하나를 제작하는 데 100 시간의 미니어처 에나멜 페인팅과 파요네 작업이 필요합니다.

#### **다채로운 다이얼로 완성된 4 가지 특별한 이미지**

---

샤나메는 페르시아 역사를 신화, 전설, 역사라는 세 가지 주요 주기로 나눕니다. 리베르소 트리뷰트 에나멜 시리즈에 선택된 4 점의 그림은 전설 속 이야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각 작품에서 핵심적으로 등장하는 말은 페르시아 문화에서 말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 **아프라시아브 앞에서 폴로 경기를 하는 시야바슈(SIYAVUSH PLAYS POLO BEFORE AFRASIYAB,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삽화가 있는 2 절판 책 No.180, 카심 이븐 알리(Qasim ibn 'Ali) 작품, 1525-30 년경에 그림

폴로 경기를 명확하게 묘사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이 그림은 경기가 만들어질 당시, 사파비(Safavid) 궁중에서의 폴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샤나메의 두 번째 주기에는 페르시아의 두 전설적인 지역이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투란의 왕 아프라시아브가 폴로 경기를 제안했고, 이를 대범하게 수락한 시야바슈는 결국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림 속에 묘사된 하늘의 청명한 푸른색을 반영하여, 이 모델의



다이얼은 기요세 선레이 패턴 위에 선명한 블루 컬러의 그랑 퓨 에나멜로 장식되었습니다. 120 개의 선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에나멜링에 8 시간이 소요된 것 외에도 7 시간의 세심한 작업을 거쳐 완성되었습니다.

**아들들을 시험하는 용의 모습을 한 파리둔(FARIDUN IN THE GUISE OF A DRAGON TESTS HIS SONS, 토론토 아가 칸 박물관)**

삽화가 있는 2 절판 책 No.42, 아카 미락(Aqa Mirak) 작품, 1525-35 년경에 그림

피르다우시의 서사시에서 페르시아 왕 파리둔은 세 아들의 성격을 몰래 알아보기 위해 신화 속 용인 아즈다하(azhdaha)로 변신했습니다. 불을 뿜는 괴물과 마주쳤을 때, 첫째 아들은 도망쳤고 둘째 아들은 싸울 준비를 했으며 셋째 아들은 통치하는 데 필요한 지혜와 용기를 보여주며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이 그림 속 장면은 페르시아 문화권에서의 리더십과 효도의 미덕을 상징합니다. 다이얼은 7 시간의 정교한 장인 기술을 통해, 120 개의 선으로 구성된 정교한 헤링본 기요세 패턴으로 장식되었습니다. 밝은 블루 톤의 반투명 그랑 퓨 에나멜 층 아래에 있는 디자인은 아들들이 용과 맞서는 그림에 묘사된 풍경 컬러와 조화를 이룹니다.

**엘부르즈산맥에 온 사암(SAAM COMES TO MOUNT ALBURZ, 베를린 이슬람 미술 박물관)**

삽화가 있는 2 절판 책 No.63, 작가 미상, 술탄 무함마드(Sultan Muhammad)의 의뢰로 1535 년경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

존경받는 전사였던 사암은 갓 태어난 아들 잘(Zal)이 악마에 씌였다는 징표인 흰 머리카락을 갖고 태어났다는 이유로 엘부르즈산에 버렸습니다. 산 정상에 사는 신화 속 새, 시무르그(Simurgh)는 그 아이를 정성으로 보살피며 지혜롭게 키웠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후회에 사무친 사암은 용서를 구하며 아들을 되찾기 위해 엘부르즈산에 올랐습니다. 사암과 잘의 재회하는 장면은 용서, 신의 개입, 부자지간의 유대감이라는 주제를 반영합니다. 그림 속 다양한 그린 톤을 담아낸 시계 다이얼은 32 개의 정밀한 선으로 구성된 물결 모양의 기요세 패턴으로 장식되었습니다. 반투명 그린 컬러의 그랑 퓨 에나멜 아래에 표현된 정교한 디자인은 7 시간에 걸친 세심한 기술로 완성되었습니다.

**야생 당나귀 악마, 아크완을 쫓는 로스탐(RUSTAM PURSUES AKVAN, THE ONAGER-DIV, 아가 칸 박물관)**

삽화가 있는 2 절판 책 294, 무자파르 알리(Muzaffar 'Ali') 작품, 1530-35 년경에 그림



페르시아 전설에서 가장 유명한 투사인 로스탐은 왕으로부터 자신의 말을 위협하는 야생 당나귀(Onager)를 죽이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잘의 아들이자 사암의 증손자인 로스탐은 선대와 같은 업적을 쌓으며 페르시아 신화 속 영웅적 인물의 계보를 이어갑니다. 이 그림에서 로스탐은 야생 당나귀를 올가미로 잡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가미가 목에 닿자 야생 당나귀는 사라지고, 그 진짜 정체가 디브(Div, 악마)인 아크완임이 드러납니다. 그림 속 초목의 생동감 넘치는 톤과 어울리는 이 모델의 다이얼은 정교한 기요세 마름모꼴 패턴 위에 풍부한 그린 컬러의 그랑 퓨 에나멜로 장식되었습니다. 980 개의 선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7 시간의 세심한 작업을 거쳐 완성되었습니다.

리베르소 트리뷰트 에나멜 '샤나메'는 웅장한 예술과 문학 작품을 비롯하여 리베르소의 기원에 바치는 고귀한 헌사입니다. 파인 위치메이킹과 기요세, 그랑 퓨 에나멜링, 파요네, 미니어처 에나멜 페인팅 장식 공예의 탁월한 결합으로 이루어진 4 점의 특별한 타임피스 시리즈는 각각 10 피스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출시됩니다.

## 상세 정보

---

**리베르소 트리뷰트 에나멜 '샤나메' - 아프리카시아브 앞에서 폴로 경기를 하는 시야바슈**

**케이스:** 18K 화이트 골드(750/1000)

**크기:** 45.6 x 27.4mm, 두께 9.73mm

**칼리버:** 매뉴얼 와인딩 예거 르쿨트르 칼리버 822

**기능:** 시, 분

**파워 리저브:** 42 시간

**앞면 다이얼:** 선레이 기요세 패턴, 그랑 퓨 에나멜

**케이스백:** 미니어처 페인팅 그랑 퓨 에나멜, 파요네 기법

**방수:** 3 바(bar)

**스트랩:** 블랙 앨리게이터 가죽

**버클:** 교체 가능한 더블 폴딩 클래스프

**제품 번호:** Q39334S1

10 피스 리미티드 에디션



**리베르소 트리뷰트 에나멜 ‘샤나메’ - 아들들을 시험하는 용의 모습을 한 파리둔**

**케이스:** 18k 화이트 골드(750/1000)

**크기:** 45.6 x 27.4mm, 두께 9.73mm

**칼리버:** 매뉴얼 와인딩 예거 르쿨트르 칼리버 822

**기능:** 시, 분

**파워 리저브:** 42 시간

**앞면 다이얼:** 헤링본 기요세, 그랑 퓨 에나멜

**케이스백:** 미니어처 페인팅 그랑 퓨 에나멜, 파요네 기법

**방수:** 3 바(bar)

**스트랩:** 블랙 앨리게이터 가죽

**버클:** 교체 가능한 더블 폴딩 클래스프

**제품 번호:** Q39334S2

10 피스 리미티드 에디션

**리베르소 트리뷰트 에나멜 ‘샤나메’ – 엘부르즈산맥에 온 사암**

**케이스:** 18K 화이트 골드(750/1000)

**크기:** 45.6 x 27.4mm, 두께 9.73mm

**칼리버:** 매뉴얼 와인딩 예거 르쿨트르 칼리버 822

**기능:** 시, 분

**파워 리저브:** 42 시간

**앞면 다이얼:** 물결 패턴 기요세, 그랑 퓨 에나멜

**케이스백:** 미니어처 페인팅 그랑 퓨 에나멜, 파요네 기법

**방수:** 3 바(bar)

**스트랩:** 블랙 앨리게이터 가죽

**버클:** 교체 가능한 더블 폴딩 클래스프

**제품 번호:** Q39334S3

10 피스 리미티드 에디션



## 리베르소 트리뷰트 에나멜 ‘샤나메’ - 아크완을 쫓는 로스탐

**케이스:** 18K 화이트 골드(750/1000)

**크기:** 45.6 x 27.4mm, 두께 9.73mm

**칼리버:** 매뉴얼 와인딩 예거 르쿨트르 칼리버 822

**기능:** 시, 분

**파워 리저브:** 42 시간

**앞면 다이얼:** 마름모꼴 기요세 패턴, 그랑 퓨 에나멜

**케이스백:** 미니어처 페인팅 그랑 퓨 에나멜, 파요네 기법

**방수:** 3 바(bar)

**스트랩:** 블랙 앨리게이터 가죽

**버클:** 교체 가능한 더블 폴딩 클래스프

**제품 번호:** Q39334S4

10 피스 리미티드 에디션

---

### 리베르소 소개

1931 년, 예거 르쿨트르는 20 세기 클래식한 디자인으로 자리매김한 리베르소를 출시했습니다. 격렬한 폴로 경기를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된 워치는 세련된 아르데코 라인과 독특한 회전형 케이스 디자인으로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아이코닉한 모델이 되었습니다. 90 년 동안 정체성을 고스란히 간직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모습을 선보인 리베르소는 79 개의 다양한 칼리버를 탑재하고 39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메탈 소재의 다이얼 뒷면은 에나멜링과 인그레이빙 또는 젤스톤으로 장식할 수 있어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캔버스가 되었습니다. 리베르소가 출시한 지 90 여 년이 지난 오늘날, 리베르소는 탄생에 영감을 준 모던함의 정신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

### 예거 르쿨트르 소개 – 워치메이커의 워치메이커™

1833 년부터 혁신과 창의성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과 발레드주의 평화로운 자연 환경에서 영감을 받은 예거 르쿨트르는 컴플리케이션에 대한 전문성과 메커니즘의 정확성으로 독보적인 워치메이커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워치메이커의 워치메이커™로 알려진 매뉴팩처는 1,400 개 이상의 다양한 칼리버 제작을 통해 독창적인 정신을 끊임없이 표현해 왔으며 430 여 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랑 메종의 워치메이커는 190 여 년 이상 축적된 전문 지식과 열정을 바탕으로 정밀한 최첨단 메커니즘을 디자인, 제작, 마감, 장식하며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고 언제나 시간의 흐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80 여 개의 기술력이 한 지붕 아래 모인 매뉴팩처에서 기술적 독창성과 미적 아름다움, 절제된 세련미가 결합된 파인 워치메이킹 작품을 탄생시킵니다.

---

**jaeger-lecoultre.com**